

한·중간 인적교류 추이와 정책적 시사점

김주훈 (KAIST경영대학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한·중간에는 그동안 무역 등 실물경제거래의 급증과 더불어 관광객 내왕, 유학생 및 취업·연수목적의 교류는 물론 양국 국민간의 국제결혼도 꾸준히 증대되어 왔음.

- 2012년말현재 관광, 유학, 취업, 방문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중국인이 698,444명(한국계 중국인 447,877명 포함)으로 전체의 약 48%이며 이어 미국인 130,562명(9%), 베트남인 120,254명(8%), 일본인 57,140명(4%)의 순서임.

□ 한·중간의 인적교류 추이를 (i)관광객 내왕 (ii)유학생 교류 및 (iii)국제결혼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관광객 내왕>

- 2012년 중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114만 명, 그 중 중국인 관광객은 284만명(전체관광객의 25.5%)으로 2001년의 48만 명(비중 9.4%)에서 대폭 증가
○2013년 연간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는 440만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그 비중도 36%선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한국관광공사)
- 한편 2012년중 한국인 해외출국자 1,374만명중 중국 여행자는 407만명으로 29.6%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여행 대상국은 일본(204만명,비중 14.9%)임.
- 2012년중 중국인 해외관광객 수는 8,318만명(전년대비 18.4% 증가)으로 출국관광객 수에 있어서 이미 독일,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알려 짐
○또한 2013년중 중국의 해외관광객 수는 9,4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중 약 59%가 생애 최초 해외관광객으로 추산됨(인민일보 해외판, 2013.5.11자)
- 해외여행에 나서는 전체 중국인 관광객중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비중은 2012년중 3.4%에서 2013년에는 4.7%으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

<유학생 교류>

- 국내 외국인 유학생(2013.4.1 기준)중 중국인 유학생 수는 55,427명으로 전체의 63.8%의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인(4.7%), 몽골인(4.4%), 베트남인(2.8%), 미국인(3.1%)의 순서임.

<표 1> 국내외국인유학생현황

(2012. 4. 1. 기준)

국 가	중 국	일 본	몽 골	미 국	베트남	대 만	기 타	합 계
학생수(명)	55,427	4,093	3,797	2,665	2,447	1,510	16,939	86,878
비중(%)	63.8	4.7	4.4	3.1	2.8	1.7	19.5	100.0

출처: e-나라지표

- 한편 한국인의 유학대상국(2012.4.1. 기준)을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73,351명으로 전체의 30.7%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62,855명(26.3%)으로 2위, 그 다음 캐나다(8.6%), 일본(8.4%), 호주(7.2%)의 순서임.

<표 2> 국내외국인유학생현황

(2012.4.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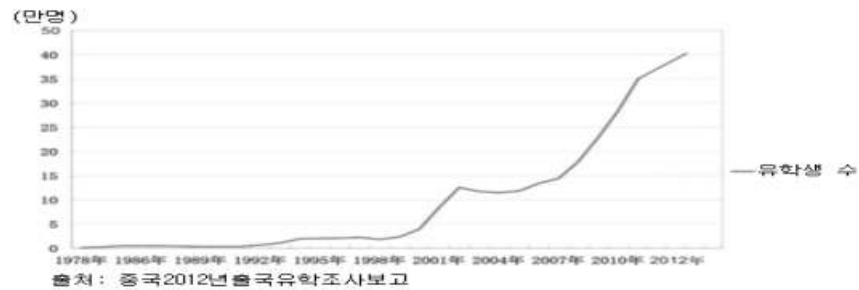
국 가	미 국	중 국	캐나다	일 본	호 주	영 국	뉴질랜드	기 타	합 계
유학생 수 (명)	73,351	62,855	20,658	19,994	17,256	12,580	8,033	24,486	239,213
비 중 (%)	30.7	26.3	8.6	8.4	7.2	5.3	3.4	10.2	100.0

출처: e-나라지표

- 한편 중국의 해외유학목적 출국자 수는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힘입어 특히 1990년대말 이후 급증세(도 1참조)를 보여 1978~ 2012년중 전체출국자 누계는 265.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2.4.1. 현재 한국체류중인 중국인 유학생의 중국 유학출국자누계에 대한 비율은 2.4%에 불과함

○2012년중 중국 출국유학생 40만명의 주 유학대상국별 비중은 미국 9%(130, 562명), 베트남 8%(120,254명), 일본 4%(57,174명) 등임.

<도 1> 1978~2012년중중국의유학출국자 추이



<국제 결혼>

- 한·중간 국제결혼은 2000년이후 크게 늘어나 2005년중 42,356건(전체 국제결혼의 61%)을 기록하였으며 그 이후 수적으로나 비중면에서 점차 감소세를 보여 2012년 중에는 28,325건(비중은 32%)으로 줄어 들었으나 여전히 결혼상대국 1위 지위를 유지
 - 한·중간 국제결혼의 급증기는 주로 한국남성과 한국계 중국인 여성과의 혼인 증가에 기인. 그러나 그 후 한국남성과 베트남, 필리핀 여성 등과의 혼인이 늘어나면서 2010~11년중은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과의 결혼이 중국여성과의 결혼 건수를 상회
- 한·중간 국제결혼에 있어 또 다른 변화의 하나는 2000년대초반이후 한국여성과 중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이 늘어 나면서 그 이전까지 한국여성의 주된 국제결혼대상이던 일본 및 미국남성들과의 결혼 건수를 상회하고 있는 점임.
 - 특히 2009년이후 한국여성과 외국남성과의 국제결혼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한국여성과 중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은 한국여성의 전체국제결혼의 26%(2012년)~33%(2009년)를 점함으로써 중국이 한국여성의 국제결혼상대국 제1위를 계속 유지
 - 또한 근년에 들어와 한국여성의 국제결혼대상으로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등의 남성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3> 한국인의국제결혼현황

(단위: 건, %)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2012
계 (I+II)	11,605	15,202	34,640	38,759	36,204	33,300	34,235	28,325
I. 한국남성 + 외국여성	6,945 (100.0)	10,698 (100.0)	25,105 (100.0)	29,665 (100.0)	28,163 (100.0)	25,142 (100.0)	26,274 (100.0)	20,637 (100.0)
중국	3,566(51.3)	7,023(65.6)	18,489(73.6)	14,566(49.1)	13,203(46.9)	11,364(45.2)	9,623(36.6)	7,036(34.1)
베트남	77(8.1)	474(4.4)	2,461(9.8)	10,128(34.4)	8,282(11.7)	7,249(28.8)	9,623(36.6)	6,586(31.9)
필리핀	1,174(18.9)	838(7.8)	947(3.8)	1,117(3.8)	1,857(6.6)	1,643(6.5)	1,906(7.3)	2,216(10.7)
II. 한국여성 + 외국남성	4,660 (100.0)	4,504 (100.0)	9,535 (100.0)	9,094 (100.0)	8,041 (100.0)	8,158 (100.0)	7,961 (100.0)	7,688 (100.0)
일본	2,630(56.4)	2,032(45.1)	3,118(32.7)	3,412(37.5)	2,743(34.1)	2,422(29.7)	2,090(26.3)	1,582(20.6)
중국	210(4.5)	263(5.8)	3,618(37.9)	2,589(28.5)	2,101(26.1)	2,617(32.9)	2,293(28.8)	1,997(26.0)
미국	1,084(23.2)	1,204(26.7)	1,332(14.0)	1,443(15.9)	1,347(16.8)	1,312(16.0)	1,516(19.0)	1,593(20.7)

출처: e-나라지표(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향후 과제

- 한·중간의 인적교류는 중국인의 소득 및 대외활동 증대전망에 더하여 양국간의 지리 및 문화적 요인을 토대로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늘어 날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
- 최근 들어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제고 및 활성화차원에서 외국 관광객을 위한 쇼핑·관광·레저산업에의 투자증대, 의료관광 및 의료수출 촉진, 해외환자에 대한 의료보험적용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발표한 바 있어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된다면 향후 한·중 인적교류 증대에 따른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중간의 인적교류는 관광목적외에 취업·유학·결혼 등 많은 부분이 국내 거주와 관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늘어나는 한·중간 인적교류에 대한 대비책은 새로운 산업 및 소비시장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임. 즉 중국 위안화의 대외위상 향상에 맞추어 위안화의 국내 집적 및 이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위안화와 연계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활용 증대를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참고자료>

e-나라지표 (국제결혼 현황, 유학생 동향, 2012 국적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시스템, 중국 인민일보 해외판 2013.5.11일자, 中國教育在線, 중국2012년출국유학조사보고 등)